

# 신태용 vs 오소리오...운명을 건 '수 싸움'



신태용 축구 대표팀 감독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슈틸리케감독의 후임으로 사령탑에 올라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으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거스리던 크 전 대표팀 감독의 복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월드컵을 앞두고 신 감독이 '통쾌한 반란'을 약속한 것도 자신과 대표팀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대표팀과 24일(한국시간) 오전 0시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될 멕시코의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 감독도 인기 많은 감독은 아니었다.

멕시코의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이던 이달 초 스코틀랜드전에서 1-0 승리를 지휘했으나 성에 차지 않았던 멕시코 관중은 '오소리오 퇴진'을 외치고 야유를 쏟아냈다.

나란히 비교하기엔 다른 점이 많지만 맞대결의 앞둔 두 감독의 '비인기' 요인은 지략가형 지도자라는 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감독에 대한 비판은 숙명이고 팀의 경기력에 따라 감독에 대한 평가도 순바다

내일 밤 12시 한국-멕시코전 맞대결  
찾은실험 공통점 1차전은 희비 갈려  
선수 기량 기반 지략 대결 결과 좌우



뒤집히듯 바뀌곤 하지만 두 감독은 공통으로 찾은 '실험'으로 비난을 산 경우다. 짧은 기간에 월드컵 대표팀의 완성도를 높여야 했던 신태용 감독은 '실험' 또는 '트릭'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하게 감쪽 시도를 했다.

예상 밖 선택을 했을 때 감독이 얻을 수 있는 평가는 '모 아니면 도'다. A매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승우(베

로나)와 문선민(인천)의 발탁이 성공한 '신(申)의 한 수'로 평가받은 데 반해 몇 차례의 스리백 실험이나 공격진 조합은 결국 감독을 향한 맹비난의 근거가 됐다.

콜롬비아 출신의 '공부하는 감독' 오소리오도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두가 예상치 못한 전술을 내놓곤 했다.

2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멕시코가 지난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서 칠레에 0-7로 무참히 짓밟히자 오소리오 감독에 대한 사퇴 요구는 거세졌고 감독은 성난 팬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팬들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 가볍지 않은 발걸음으로 러시아에 온 두 감독은 첫 경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오소리오 감독은 우승후보 독일을 1-0으로 꺾으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잠재웠고, 신태용 감독은 스웨덴전에 패하면서 다시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아직 두 경기가 남았다. 독일전 승리로 여론 반전이 시작된 오소리오 감독도 결과가 따라서는 다시 비판 여론에 시달릴 수 있고, 신 감독도 약속했던 통쾌한 반란을 남은 두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

24일 맞대결은 두 감독에도 그래서 더없이 중요한 경기다.

선수들의 기량은 지금 와서 크게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없으니 두 지략가의 수 싸움이 경기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신 감독은 손흥민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찾으면서 동시에 멕시코의 막강 화력에 대처해야 한다. /연합뉴스



포효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가 21일 오전(한국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아레나에서 열린 2018러시아월드컵 A조 조별리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다. 수아레스는 월드컵 3개 대회 연속골을 넣은 첫 번째 우루과이 선수로 기록됐다. /AP·연합뉴스

## 멕시코전 승부 '더위'가 변수

낮 기온 34도...경기당일 오후도 30도 안팎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에게 '더위와 싸움'이 멕시코전 승부에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 F조 2차전을 벌인 로스토프나도누는 조별리그 경기를 벌이는 3개 도시 중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로스토프나도누는 로스토프주의 주도로, 온도가 하류, 아조프 해의 연안에 있는 러시아 남부의 항구 도시다.

6~7월 평균 기온이 섭씨 영상 22.2도로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는 11개 도시 중 가장 높다.

특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지금 날씨는 더위가 한창이다.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4도

까지 올라간다. 습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강한 햇빛과 더위가 멕시코전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팀은 평균 기온이 17.3도 안팎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베이스캠프를 차렸고, 스웨덴과 1차전 장소였던 니스니노브고로드도 평균 17도 안팎이었다.

대표팀은 23일 오후 6시(한국시간 24일 오전 0시) 멕시코와 결전을 벌인다. 그때까지도 3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더위와 맞닥뜨리는 태극전사들과 감기를 앓았던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많았던 아스텍 전사 후예들 간 맞대결에서 칸디선 관리가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호날두의 월드컵'...메시·네이마르 부진 속 더 빛나

양발·머리 온 몸으로 득점...A매치 통산 85골 역대 2위·유럽 1위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는 '호날두의 독무대'다. '세계 3대 공격수'가 모두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만이 돋보인다.

호날두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B조 2차전에서 결승 골을 넣었다. 포르투갈은 모로코를 1-0으로 눌렀다.

호날두는 전반 4분 코너킥 상황에서 주앙 모티뉴의 패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받아 넣었다.

이번 대회 2경기 만에 나온 호날두의 4번째 골이다.

16일 스페인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호날두는 2차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며 국가대표팀 간 경기 통산 득점은

85골(152경기)로 늘렸다. 헝가리의 전설 페렌츠 푸스카스(89경기 84골)를 밀어내고 역대 2위로 올라섰다.

통산 A매치 최다 골 기록은 이란의 축구영웅 알리 다에이(149경기 109골)가 보유하고 있다.

이제 유럽에서는 호날두보다 A매치에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없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호날두는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포르투갈 선수 중 월드컵에서 오른 발, 왼발, 머리로 모두 득점한 선수는 1966년 호세 토레스 이후 호날두가 처음이다.

반면, 호날두와 함께 세계 3대 공격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네이마르(브라질)는 아직 웃지 못했다.

메시는 17일 D조 1차전에서 아이슬란드의 철벽 수비에 막혔다. 페널티킥마저 성공하지 못했다.

네이마르는 18일 스위스와 E조 1차전에서 4차례 슈팅을 했고, 득점에 실패했다. 스위스는 네이마르에게 10번이나 반칙을 했다.

호날두는 달랐다. 스페인전에서도, 모로코전에서도 호날두는 경기 최우수 선수인 맨 오브 더 매치(MOM)에 선정됐다.

클럽에서 모든 걸 이루고, 유로 2016 우승으로 대표팀에서도 메이저 대회 우승의 환을 푼 호날두는 마지막 남은 목표인 월드컵 우승과 득점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장애인 바다낚시대회

오늘 정남진해양낚시공원

2018 전남 장애인생활체육 바다낚시 대회가 22일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장에서 열린다.

장애인의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 시·군지부, 경기단체, 복지관 등 총 80여 명이 참가한다.

시상은 1위(대여성), 2위, 3위(대여성), 특별상(단독여성)으로 구분되며 레드벨스(목포점) 후원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시상품은 낚시용품이다.

모노스키 선수인 김광현씨는 "비장애인에겐 쉽고 접근성이 좋은 취미지만 외부활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은 낚시를 통해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이 낚시체험 기회를 제공해주시는 전남장애인체육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서석초등학교가 21일 본량구장에서 끝난 제25회 광주야구인동우회장기 초등학교 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서석초 광주야구인동우회장기 우승

최우수선수 홍승민...송정동초 준우승

서석초등학교가 19~21일 본량구장에서 열린 제25회 광주야구인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제48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대회에서 우승했다.

대진표 추첨에서 부진승을 뽑은 서석초는 대회 둘째날인 20일 대성초에 11-7 승리를 거두고 21일 송정동초를 2-0으로 꺾으면서 대회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준우승은 송정동초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인 수장초 등 7개 팀이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최우수선수상은 서석초 홍승민에게 돌아갔고 우수투수상은 서석초 김훈민이 받았다. 타격상은 김민성(대성초·6타수6안타), 최다투수상은 고도영(서석초·6타점)이 받았고 감투상은 손시우(송정동초), 미기상은 박상현(송정동초)이 수상했다.

양윤희 서석초 감독이 감독상을, 김미옥 서석초 교장이 지도상을 받았다.

최진화 기자